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1. 20

주간 달러/원 동향(1/13~1/17)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비농업 고용 호조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화한데 따른 달러 강세에 환율은 상승 출발. 이어 트럼프 경제팀이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달러 약세로 전환하자 하락
- 중반, 미 생산자물가 둔화로 인한 달러 약세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에도 미 CPI 관망세 속 하락폭은 제한
- 후반, 예상에 부합한 미 CPI와 금통위 동결 결정에 하락 출발 후 금리인하 시그널을 보낸 한은 총재 발언에 낙폭 축소. 이어 주 후반, 월러 연준 이사의 비둘기 발언에도 트럼프 취임 앞둔 경계감에 상승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73.2	1,474.3	1,449.6	1,458.3	-14.9

달러/원 전망

- 트럼프 취임 이후, 어떠한 행정명령에 우선 서명할 것인지 등 2기 체제에 대한 경계감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할 요인으로 예상
- 미국 산업생산 및 주택 관련 지표 등이 호조세를 보임에 따른 연준 비둘기 스탠스를 제한할 여건 지속 가능성 등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판단
- 대내적으로 사법질서 파괴 등에 대한 외국인의 정치 리스크 지속에 따른 신인도 저하 우려 등이 원화 자체의 약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다만, 설 연휴전 수출 관련 달러 매도 강화 가능성 등이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됨

예상거래범위
1,450원 ~ 1,470원

엔·유로화 동향 (1/13~1/17)



유로화 동향

- 주초, 성장에 중점을 두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ECB 주요 인사의 발언에 유로화는 약세 출발. 이어 미 PPI가 예상을 밑돌며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달러 대비 강세를 시현
- 중반, 독일 24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유로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유로화 약세를 견인
- 후반, 유로존 11월 무역수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는 소식에 소폭 반등. 이어 주 후반, 유로존 CPI가 반등했으나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빅컷 가능성을 열어둔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에 약세 마감

엔화 동향

- 주초, BOJ가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책 조정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엔화는 강세 출발. 이어 정책 변화 시점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히미노 BOJ 부총재의 발언에 실망감이 유입되며 약세로 전환
- 중반, 우에다 BOJ 총재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재차 강세
- 후반, 1월 금정위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강세 폭을 확대. 이어 주 후반, 예상을 크게 웃돈 미 산업생산 지표와 트럼프 취임을 앞둔 긴장감 등에 강달러 나타나자 일부 되돌림 보이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245	1.0355	1.0178	1.0276	+0.0031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7.8	158.2	155.0	156.2	-1.6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13~1/17)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전주 후반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강세 흐름에 미 통화정책 비둘기 기조 후퇴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이어 미국 12월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를 보인 가운데 대내적 추경 이슈가 있었으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미국채 금리 하락에 연동된 양상
- 중반 들어, 미국 물가 지표 대기 속 미국채 금리가 구간별로 등락을 보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는 미 CPI와 금통위 경계감 속에 소폭 상승
- 후반 들어, 미국 12월 CPI가 시장 예상 월간 0.3% 상승을 밑돈 가운데 한은이 환율에 방점을 두며 금리를 동결했지만 경제 불안정성 관련 상당한 비둘기 스탠스를 보인 측면이 반영되며 큰 폭 하락. 이후 주 후반,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수 속에 연준 당국자의 비둘기적 금리인하 의견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 유지하며 마감

- 주초, 미국 고용시장 호조 소식에 따른 연준 매파 성향 강화 우려 등이 투자심리를 약화시킨 가운데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에 대한 점진적 방식 검토 소식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기대 등이 반영되며 코스피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12월 생산자 물가의 예상치 하회에도 좀 더 중요한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과 금통위 관망세 등으로 약보합 흐름 나타낸 국면
- 후반 들어, 뉴욕증시의 기술주 훈풍이 반영되며 상승 전환한 코스피는 이후 금통위에서의 비둘기적 금리 동결 결정 영향이 이어지며 큰 폭 상승 흐름 국면. 이후 주 후반, 연준 월러 이사의 금리 관련 비둘기파적 발언에도 트럼프 취임을 앞둔 관망세가 더 크게 작용한 가운데 약보합 마감